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연중 제 12주일

1. 말씀읽기: 마태10,26-33

²⁶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²⁷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²⁸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²⁹ 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³⁰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³¹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³²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³³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복음을 선포하는 삶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해시대에 포졸들이 신자를 붙잡아 “너, 천주학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순교자들은 “내가 천주학을 하니 너를 만나지, 두말할 것 없다. 가자.” 하면서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느님을 모른다고 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신앙을 삶으로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잘 하였다.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것입니다.

질문 1: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마태10,26)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누구일까요?

- 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마태10,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리 떼” 같은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 ② 주님의 제자들을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사람들’(마태10,17)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 ③ 예수님을 베엘제불이라고 하거나, 예수님께서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모함하는 사람들입니다.
- ④ 미사에 기쁘게 참례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기쁘게 생활하며,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성민이나 보나 같은 친구들입니다. ^*^

질문 2: 예수님께서서는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숨겨진 것은 무엇이고, 감추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숨겨진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류에게 밝혀지지 않았던 하느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 ②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것을 제자들이 선포해야 합니다.
- ③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의 숨겨진 것들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들도 박해하였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요한 3,19)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빛은 모든 어둠의 행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은밀한 것들은 주님의 빛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행동뿐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지은 은밀한 죄들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 잘못된 행실을 벗어 던지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 3: 다음 중 부모님께 숨길 수 있는 것, 끝까지 감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친구들과 함께 술과 담배를 즐기며 자신은 안 그런 척 하는 것.
- ② 인터넷 도박을 부모님 모르게 하는 것.
- ③ 문신이나 마약을 하는 것.
- ④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은총과 구원을 주님께 청하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질문 4: 예수님께서서는 용서를 청할 때 조건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것들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서는 알고 계시지만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숨겼다가 들킨 것은 어떤 것이 있고, 그때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

.....

질문 5: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 ① 복음의 기쁨은 혼자만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 ② 내가 받은 주님의 은총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 ③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친구들은 자신이 신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한 친구들입니다. 또한 성당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기쁘며, 미사와 기도, 교리와 친교를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며, 하느님 자녀로서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살아갑니다.

질문 6: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까?

- ①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악당들의 손에 넘겨지실 때 다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따라가기는 했지만 대사제의 여종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강림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 ② 성령강림 이후, 박해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순교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박힐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하셔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박혀 순교하셨습니다.

- ③ 사도들은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²⁹ 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³⁰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³¹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흔하디흔한 참새도 기억해 주시는 하느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잊으실 리 없습니다.

“³²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³³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마태10,32-33)

질문 7: 위 성경 말씀의 문맥을 고려할 때, 32절의 말씀과 33절의 말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33절은 32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
- ② 33절은 32절의 내용과 반대되는 가상의 상황을 대조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인과 관계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 ④ 32절에서 제기된 의문점에 대해 33절에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 ⑤ 대상의 외양을 먼저 묘사한 뒤, 내면의 심리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질문 8: 위 성경 말씀 중 밑줄 친 ‘그러므로’의 문법적 기능과 문장 간의 연결 관계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앞 문장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뒤 문장에서 반대의 조건을 붙이는 ‘양보’의 접속 부사이다.

- ②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사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등’의 접속 부사이다.
- ③ 앞 문장의 내용(원인·이유)을 바탕으로 뒤 문장의 결론(결과)을 이끌어내는 ‘인과’의 접속 부사이다.^*^
- ④ 앞 문장의 어휘를 다른 쉬운 말로 바꾸어 다시 설명해 주는 ‘환언’의 접속 부사이다.
- ⑤ 앞 문장의 행동이 일어나기 전의 과거 상태를 회상하게 만드는 ‘시간’의 접속 부사이다.

질문 9: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음 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문맥적·사전적 의미가 가장 유사하게 사용된 문장은 어떤 것입니까?(다의어, 동음이의어)

- ① 가을이 되니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다.
- ②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높은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
- ③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정말 하늘이 도우셨구나. ^*^
- ④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졌다.
- ⑤ 황사 때문에 하늘이 온통 뿌옇게 변해 버렸다.

질문 10: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음 중에서 ‘증언하면’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유의어(동의어)는 무엇입니까?

- ① 방관(傍觀)하면
- ② 은닉(隱匿)하면
- ③ 증거(證據)하면
- ④ 증창(增唱)하면
- ⑤ 변명(辨明)하면

방관은 곁에서 보기만 하는 것이고, 은닉은 감추어 숨기는 것입니다. 증창은 소리를 더 높여 부르는 것이고, 변명은 핑계를 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증거(證據)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참(진실)임을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를 들어서 증명하고 밝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밝히고 말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증거하다가 유의로로 가장 좋습니다. 또한 신앙의 증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신 순교자들을 증거자라고도 합니다.

질문 11: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중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하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 ① 서경이는 영어를 잘하지만 영어미사에 참례하기 싫어서, ‘저 영어 몰라요. 한국 가면 미사 잘 할 거예요.’하면서 성당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 ② 안젤라는 몸이 아프지만 미사에 참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에 부모님께서 ‘대송으로 바치자’ 하더라도 아픈 몸을 이끌고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아픈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 ③ 기동이는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 한 번도 식사기도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성호경을 긋고 기도하면 친구들이 놀리기 때문입니다.
- ④ 루시아는 자주 미사에 참례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이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곁으로 다가온 양떼들은 오로지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위험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백성을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으려 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유혹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큰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기꺼이 하늘 나라를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하느님

나라에 비하면 지금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두려움은 유혹이고, 그 유혹은 나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허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쉬움이나 걱정들”은 주님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3. 정리해 봅시다.

- ① 오늘 말씀 중에서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그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

.....

- ② 나는 하느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체험하고 있으며,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주제와 ‘엄마, 아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해보고, 짧은 글을 써 봅시다.

.....

.....

4. 실천사항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 사랑에 감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정해보기

.....

.....

5. 말씀으로 기도하기

.....

.....

.....

.....

.....

.....

.....

말씀으로 기도하기

..... 하느님 아버지!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저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등으로 말씀에 감동받은 부분을 가지고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 라는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말씀 중에서 와닿는 말씀(감동, 기쁨, 사랑, 행복, 통회, 감사, 열정 등)을 한 구절 선택합니다. 그 말씀으로 전체를 바라보며 기쁨 속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 있습니다/되었습니다./~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기쁨과 행복, 사랑, 감사, 열정, 잘못된 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과 통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본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 하느님 아버지!

(이제 결심을 하기 위해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제가

..... 하소서/ 주소서/~ 도록 강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사항을 2-3개 정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그 결심(실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 하느님께는 찬미와 영

광을 드리게 하소서.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착한 행동과 사랑스러운 모습, 변화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면 형제자매들에게는 작은 모범이 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느님께는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